

“2020 시즌 준비는 끝났는데 코로나19가 걱정”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테리 스포츠 파크에서 스프링캠프 마지막 훈련이 끝난 뒤 모자를 던지며 2020시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시즌 밑그림 완성... 오늘 귀국
양현종·브룩스·가봉, 실전 점검
최원준, 공·수 활약하며 입지 확대
하루 휴식 후 18일부터 훈련 재개
선수단-팬-취재진 근거리 접촉 제한

플로리다 캠프에서 진행된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 리허설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한 KIA가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예정보다 길어진 여정이었다. 지난 1월 30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선수들은 3월 7일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프로야구 시범경기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캠프 일정을 늘려 16일 복귀한다.

지난 2월 1일 캠프 첫 훈련을 시작한 KIA는 캠프 초반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체력·기술 훈련에 집중했다. 이후 2월 21일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 본격적인 실전 체제로 전환했다.

KIA는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를 끝으로 캠프에서 총 20차례 연습경기를 치렀다.

완벽한 연습 경기는 아니었다. 선수들의 컨디션에 초점을 맞춰, 투구수에 따라 이닝을 교체하고 주자 없는 경기를 하는 등 결과가 아닌 내용에 집중하면서 실전 점검을 했다.

마운드에서는 연일 선발 경쟁이 전개됐다. '에이스' 양현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국인 선수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봉이 선발 세 자리를 채웠고, 남은 두 자리를 위한 경쟁이 이뤄졌다.

캠프 연습 경기를 통해서도 이민우와 임기영이 선발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 두 사람은 연습경기에서 최대 4회를 소화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임기영은 14일 4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의 호투를 하면서 캠프 마지막 연습 경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민우도 4경기에서 13이닝 8피안타 2볼넷 14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강렬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다.

두 외국인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다. 브룩스가 11일 경기에서 5이닝 9K의 탈삼진 쇼를 펼치는 등 위력적인 피칭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팔몽집으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가봉도 13일 실전 등판에 나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다.

연습경기 첫날부터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된 야수진에서는 최원준이 눈길을 끌었다. 이창진이 허리 통증으로 중도 귀국하면서 중견수 자리에 선 최원준은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입지를 넓혔다.

맷 윌리엄스 감독을 앞세워 새로운 출발선에 선 KIA는 선수단 54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캠프'

프랜'을 구성해 2020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시즌을 위한 큰 틀을 완성한 윌리엄스 감독은 새로운 안방에서 세밀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KIA 선수단은 귀국 후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가 제한되면서 자체 청백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최종 엔트리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진다.

팬의 경우 선수와 만남, 사인 및 사진 요청, 선물 전달, 선수단 근거리 접촉 등이 제한된다. 취재진도 선수단 공간 출입 제한 등 취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wool@kwangju.co.kr

엠블럼으로 보는 K리그 역사

1994년 이후 5차례 변경...현 엠블럼, 2013년 30주년 기념해 제작

엠블럼에는 단체의 역사와 색이 담겨있다. 엠블럼을 통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K리그의 역사를 살펴본다.

출범 38번째를 맞는 K리그는 1994년 처음 공식 엠블럼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다섯 차례 엠블럼을 변경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사용된 첫 엠블럼은 한국 고유의 색동 컬러를 바탕으로 태극의 4괘 중 건(乾)과 코리안리그의 이니셜 K를 활용해 스트라이커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1997년과 1998년에 사용된 두 번째 엠블럼은 빠르고 힘찬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번개를 형상화했다.

1997년은 프로리그 출범 이후 15년 만에 맞은 '10구단 시대'다.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이 창단해 한국 프로축구는 제10구단 시대를 열었다.

1998년에는 기존 코리안리그에서 현재 K리그로 명칭이 변경됐다.

세 번째 엠블럼은 영문 고딕체 코리안리그 위에 초록색과 검은색 조합으로 축구공과 역동성을 강조했으며, 1999년에 도입해 2005년까지 사용했다.

1999년에는 'X-세대', '신인류'로 언급된 신세대를 중심으로 K리그에 새바람이 불었다.

20~30대 젊은 층을 필두로 구단별 서포터스가 탄생했다. 안정환, 고종수, 이동국은 'K리그 트로이카'로 불리며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용한 네 번째 엠블럼은 공모전을 통해 제작됐다.

K리그의 'K', 스타 선수를 상징하는 '별', 선수의 '슈팅 동작' 3가지 이미지를 모티브로 해서 역동적이고 스피디하게 표현했다. 주색상인 파랑은 선수들의 젊음과 패기, 투혼을 나타냈다.

2006년에는 K리그의 신인 등용문인 드래프트 제도가 부활했고, 도민구단 경남FC가 창단됐다. 또 전북 현대가 구단 창단 최초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강호 역사의 서막을 알렸다.

2010년 K리그는 '경기에서 5분 더 뛰고 팬과 5분 더 만나자'는 '5분 더 캠페인'을 벌이면서 기존의 엠블럼에 변화를 줬다. 그라운드를 상징하는 녹색 배경이 포함됐고, 'K'와 'LEAGUE' 사이에 대시(-) 대신 점(·)을 넣었다.

현재 사용하는 K리그 엠블럼은 지난 2013년에 제작됐다. 한국프로축구 30주년을 맞아 태극을 메인 모티브로 해 슈팅스타(K)와 축구공을 더해 완성했다. 강렬한 빨강과 파랑, 점점을 사용해 축구가 가진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2013년은 출범 30주년이자 승강제를 최초로 도입한 해이기도 하다. 당시 K리그 챌린지(현 K리그2) 우승팀 상주상무가 강원FC와의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해 K리그 클래식(현 K리그1)으로 승격했고, 강원과 대구FC, 대전이 강등됐다. /김여울 기자 wool@

김시우, 날아간 '우승의 꿈'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R 공동 2위...코로나19로 경기 취소

김시우(25)가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가 대회 취소로 허망하게 짐을 싸야 했다.

김시우는 지난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선두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에게 2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번 시즌에 허리 부상으로 심한 부진에 허덕인 김시우로서는 부진 탈출의 기회를 잡았다.

김시우는 작년 9월 시작된 2019-2020시즌 13개 대회에서 6차례 킷 탈락에 한번은 허리가 아파 기권하는 등 7번이나 상금을 받지 못했다. 톱10은커녕 25위 이내 입상도 없었다.

특히 후배 임성재(22)가 우승과 3위를 차지하며 펄펄 날았던 앞서 2차례 대회 혼다 클래식과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는 연속 킷 탈락의 쓴맛을 봤다.

그러나 이날 김시우는 날카로운 샷과 흔들림 없는 퍼트 등 전성기 때와 다를 바 없는 경기력을 뽐냈다.

3년 전인 2017년 이곳에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김시우는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했다.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시우는 11번

홀(파5) 집샷 이글로 기세를 올렸다.

두 번째 샷이 그린 왼쪽으로 한참 벗어난 카트 도로에 떨어졌지만 40m 거리에서 웨지로 살짝 띄워 보낸 볼은 그린 입구에 떨어지더니 홀로 굴러 들어갔다.

12번 홀(파4)에서 2m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김시우는 16번 홀(파5)에서도 세 번째 샷을 홀 1m에 붙여 1타를 더 줄였다. 2번 홀(파4) 3m 버디, 5번 홀(파5) 4m 버디를 잡아낸 김시우는 9번 홀(파5)에서도 1.5m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 돌아간 김시우는 대회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19 때문에 2라운드부터 무관중 경기라는 통보가 온지 얼마되지 않아 아예 대회를 중단한다는 결정이었다.

이글 1개, 버디 8개, 보기 1개를 묶어 9언더파 63타를 몰아쳐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운 마쓰야마도 입맛을 다셨다.

63타는 그렉 노먼, 제이슨 데이(이상 호주), 마르틴 카이머(독일)가 한 번씩 친 적이 있는 코스레코드 타이기록이다.

선수들은 앞으로 3개 대회가 취소되면서 향후 일정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